

금당

국보

요로이자카 언덕[사무라이의 갑옷(요로이)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음]의 돌계단 꼭대기에 위치한 금당은 9 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무로우지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. 얇은 나무판을 층층이 쌓아올려 이은 고케라부키 지붕 양식으로 광장이 정면에 보이는 경사지에 세워져 있으며, 2 단 돌담 위에 지은 다소 특이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

금당의 수미단은 무대와 같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훌륭한 불상들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은 장관을 이룹니다. 광배를 등 뒤에 둔 3 구의 커다란 불상 앞에 작은 불상이 줄지어 배열된 독특한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석가여래가 위치해 있습니다. 석가여래의 좌측 옆에는 초월적 지혜의 실현을 상징하는 문수보살이, 우측 옆에는 의술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가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들의 앞에는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에 만들어진 십이신장상(현재는 6 구)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. 매우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이 전사들은 열두 방향을 수호하는 존재로서 십이지에 해당되는 동물이 각각 머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. 나머지 6 구는 보물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.